

두산 연강예술상 수상기념전 김시연 '노르스름한'

이혜원 기자

2012.11.19. 16:37

[기사내보내기 ▼](#)

2010 년 두산 연강예술상 수상작가인 김시연의 개인전이 열린다.

두산갤러리가 주최하는 김시연 작가의 <노르스름한>展이 오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서울 견지동 두산갤러리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신작 사진과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김시연 작가는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금이나 비누, 바늘, 계란 껍질, 지우개 가루 등을 이용한 설치 작품과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인간의 실존적 고독과 소외감을 표현해 왔다. 작품의 주를 이루는 흰색은 연약하지만 미묘한 존재감을 가진 사소한 감정들, 슬픔, 불안 등을 상징한다.

이번 전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노르스름한' 연작에서는 흰색 화면에 컵, 수저, 달걀 껍질, 비닐봉지, 종이컵 등의 일상의 물체들과 노르스름한 버터, 지우개 가루 등을 테이블 모서리에 불안정하게 배치한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위태롭고 불안한 인간의 심리를 섬세하게 담아낸 장치다.

김시연 작가는 이화여대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 대학원 순수미술학과를 졸업했다. 뉴욕 두산갤러리와 사토리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한국에서는 갤러리현대 16번지, 갤러리 엠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유니온프레스=이혜원 기자]



김시연, 노르스름한, 2012, digital print, 80x100cm



김시연, 노르스름한, 2012, digital print, 130x200cm



김시연, 노르스름한, 2012, digital print, 130x200cm